

‘휴식 끝’ 광주FC ‘파이널A’ 위한 승점 사냥 나선다



14일 수원FC와 K리그1 29라운드 원정 경기
강원에 골득실 앞선 6위...울산·안양도 추격

달콤한 휴식을 끝낸 광주 FC가 파이널A를 위한 승점 사냥을 위해 수원으로 떠났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올 시즌 10승 8무 10패(승점 38)를 기록하면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파이널A 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경쟁이 치열하다. 7위 강원FC도 10승 8무 10패(승점 38)를 기록하면서 동률을 이루고 있다. 광주가 28골을 넣으면서 26득점의 강원에 앞선 6위에 랭크됐다. 이어 8위 울산HD이 승점 34(9승 7무 12패), 9위 FC안양이 승점 33(10승 3무 15패)으로 광주를 추격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8월 리그 4경기를 치러 2승 2패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승점 6점을 더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좀처럼 연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

즌 시작부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했고, 코리아컵까지 동시에 소화하느라 체력적인 부담이 많았다. 무더위 속 썹 없이 달려왔던 광주는 기분 좋게 9월을 연다. 광주는 8월 마지막주 코리아컵 4강전과 리그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결과는 모두 승리였다. 8월 27일 부천과의 4강 2차전을 2-1로 끝내면서 합계 스코어 4-1로 구단 첫 코리아컵 결승행을 확정했다. 그리고 8월 30일 제주도로 건너간 광주는 빗속 혈투 속에 기록된 박인혁의 페널티킥골로 제주SK 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은 A매치 휴식기를 맞았다. 12월 6일 코리아컵 결승전까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광주는 더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파이널A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8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이정효 감독의 지략과 세밀한 운영으로 코리아컵 결승행과 제주전 승리를 이루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9월 질주를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A매치 휴식기 동안 큰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도 있다. U22 대표팀에 선발된 정지훈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대표 센터백 변준수는 미국·멕시코 친선경기 명단에 포함돼 ‘홍명보호’의 쟁쟁한 선배들의 경험을 그라운드 안팎에서 배우고 왔다. 변준수의 눈부신 활약 속 광주는 리그 최하 실점 공동 2위(30실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광주는 지난 7월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2분 기록된 아사니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했다. 광주에서 활약했던 수원 이적생 율리안에게 동점을 허용한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나온 골키퍼 김경민의 자책골로 패배를 기록했었다. 공수에서 짜임새를 더한 광주가 설욕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재충전을 끝내고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 나선다. 앞선 28라운드 제주전 분위기를 이어 연승에 도전한다. 제주 원정경기에서 박인혁이 페널티킥 키퍼로 선제골을 장식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 <광주FC 제공>

화순 임애지 ‘여자 복싱’ 새 역사

세계선수권 준결승 진출...한국 여성 첫 올림픽·세계선수권 모두 메달

한국 복싱 간판 임애지(화순군정)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로 우뚝 섰다. 임애지는 10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 복싱(World Boxing)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4kg급 8강전에서 타티아나 헤지나 지 지수스 사가스(브라질)를 심판 전원일치 5-0 판정으로 제압했다. 사가스는 임애지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54kg급 16강전에서 물리친 상대다.

임애지는 1년 만에 다시 만난 사가스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잡아내며 이번 대회 메달을 확보했다. 앞서 임애지는 16강전에서 개최국 영국의 매키로렌과 접전을 펼쳐 3-2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 메달과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모두 획득한 건 조석환(시드니 올림픽 동메달·2003년 세계선수권 동메달) 이후 임애지가 처음이며, 여자 선수로는 최초다.

임애지는 우리시간으로 13일 오후 7시 30분 황사오원(대만)과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복싱은 국제대회에서 따로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전에서 패한 선수 2명이 모두 동메달을 가져간다. 한편 여자 60kg급 오연지(울산광역시체육회)는 크리스티나 유스베이다 리오스 오헤다(베네수엘라)를 잡고 8강에 올랐으나 양청위(중국)에게 패해 메달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임애지가 10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 복싱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4kg급 8강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대한복싱협회 제공>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우승팀, 광주 대표로 전국대회

광주시체육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개최한 ‘2025년도 중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마무리됐다. 대한체육회 기금(4600만원)으로 운영한 스포츠클럽 대회에는 연식야구, 티볼, 플로어볼, 탁구 등 4개 종목에 총 103개 팀 1600명이 참가했다. 이번 스포츠클럽 대회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예선전을 겸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첨단야구장, 무등야구장, 일선학교 등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광주시 대표로 오는 10-11월 전국에서 중목별로 분산 개최되는 제18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적 여자 테니스 스타들이 온다

코리아오픈 13일 서울서 개막
시비웅테크·라두카누 등 출전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출전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총상금 106만4510달러)이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개막한다. 올해 대회에는 원불던 우승자 이가 시비웅테크(2위·폴란드)와 2021년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에마 라두카누(34위·영국) 등 메이저 우승 경력에 있는 선수들이 대거 한국 팬들과 만난다. 이들 외에 지난해 원불던 챔피언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40위·체코), 2020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소피아 케닌(31위·미국)이 출전하고 에카테리나 알렉산드로바(11위·러시아), 클라라 타우손(12위·덴마크), 다리아 카사트키나(16위·호주), 디아나 슈나이더(19위·러시아) 등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들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끄는 선수는 역시 시비웅테크와 라두카누다. 시비웅테크는 만 20세도 되기 전인 2020년 프랑스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왕좌에 오른 이래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6차례나 우승했다. 현역 선수로는 비너스 윌리엄스(미국)의 7회에 이어 많은 메이저



단식 우승 기록 보유자다. 내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시비웅테크는 1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시비웅테크는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하고, 라두카누는 이번이 세 번째 코리아오픈이다. 라두카누는 코리아오픈에서 2022년 4강, 지난해 8강에 진출했다. 라두카누는 2021년 US오픈 외에는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우승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첫 일반 투어 대회 우승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예선이 13, 14일에 진행되고, 본선은 15일부터 시작한다. 15일부터 주요 경기를 tvN 스포츠에서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배구연맹, 국제배구연맹 규정 몰랐나

현대캐피탈-대한항공 V리그 개막전 연기 불가피

오는 10월 1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남자 프로배구 2025-2026시즌 V리그 개막전으로 치를 예정이던 현대캐피탈-대한항공 경기가 내년 3월 19일로 미뤄졌다. 1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지난 2024-2025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했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간 맞대결을 새 시즌 V리그 개막 경기로 일정을 잡아놨으나 국제배구연맹(FIVB)이 정한 클럽시즌 규정에 어긋나 경기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3주간의 휴식이 이후부터 각국 리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클럽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은 12일 막을 올려 28일 끝나기 때문에 3주 후인 10월 20일부터 리그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배구연맹은 FIVB의 클럽시즌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일정표를 짰다가 결국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배구연맹은 FIVB에 두 차례 서한을 보내 이미 경기 일정을 확정된 상태여서 TV 중계와 경기장 대관 조정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FIVB는 규정 준수를 이유로 기존 10

월 18일 경기 일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맹은 10월 18일 현대캐피탈-대한항공 경기를 6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난 후인 내년 3월 19일 치르기로 했다. 이런 일정 조정안은 10일 열린 사무국장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통과됐고, 현대캐피탈 구단 내부 보고 과정을 거치면 확정된다. 새 시즌 V리그 남자부 첫 경기는 10월 20일 한국전력-우리카드전이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연기되는 현대캐피탈-대한항공전이 열릴 내년 3월 19일은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 행사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봄배구 일정도 하루씩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 18일 예정된 여자부 흥국생명-경관장 경기를 새 시즌 그랜드 개막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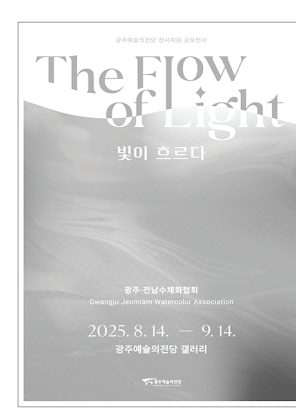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